

# 인문계열 [문제 1]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의 지섭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때 문인지를 밝히고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문 (나)의 두 입장에서 각각 찾아 설명한 후,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다음은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8) 의 일부를 각색한 내용이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 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세상이 불평등한 것 아닌가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나)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서열화 된 지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은 그 중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전근대 사회에서는 출생 신분이라는 선천적인 조건이 개인의 위치를 구분 지었다. 이후 근대화를 거치면서 후천적 성취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적 위치가 서열화 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권력, 위신 등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을 사회 불평등이라고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기능론과 사회 갈등론의 관점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사회 기능론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즉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 지위에 따른 역할 수행 능력에 따라 자원이 차별적으로 분배된다고 파악한다. 이처럼 기능론에서는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회 갈등론에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수나 대우를 차등 분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은 지위와 많

은 보수가 주어지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도 개인의 자질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도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다)

정보 사회 초기에는 정보를 얻고 활용할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정보 접근권'이 도덕적 문제로 떠올랐다. 평등을 지향하였던 접근권 요구는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논쟁을 거쳐서 민주적인 정보 유통에 대한 요구로 논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확산을 지향하는 정보 자체의 속성에 맞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선한 것이고,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정보나 비공개적인 정보 유통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정보 유통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정보가 지닌 재산적 가치가 윤리 문제가 되면서,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가치를 증대하자는 것이 \*카피레프트(copyleft)의 주장이고, 정보 생산에 들어간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해서 정보 자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창작 동기를 자극하자는 것이 \*카피라이트(copyright)의 주장이다.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는 양쪽 진영이 다르지 않다.

\*카피레프트(copyleft):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므로 창작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모든 정보는 무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다. 독점적인 판권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 칭하며, '정보 공유론'이라고도 한다.

\*카피라이트(copyright): 정보 상품에 대한 판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다. 판권(copyright)을 강조하여 '정보 사유론'이라고도 부른다.

## ■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에 대한 글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인 원인과 사회적 결과를 찾아내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 사회 현상에 대한 논의가 문학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을 때 이를 찾아내고 그 내용을 사회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
- 최근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고전적인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해하고 그 연결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

## ■ 문항 해설

- 이 문항은 제시문 (나)를 읽고, 한정된 자원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인 불평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 즉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소설 속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고 제시문 (다)에서 소개하고 있는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각각의 입장에서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에서 소개되어 있는 조재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8)의 일부를 각색한 내용으로 응시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미 접한 내용이다. 또한, 소설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시문 내에서 등장인물 지섭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말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했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입장 기능론과 갈등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제시문 (가)의 등장인물 지섭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 불평등에 관한 각 입장은 제시문 (다)의 정보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두 가지 주장 즉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각각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단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했다. 정보 윤리의 주요 주제는 평등, 자유, 책임, 정의와 같은 정통적인 가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정보가 지닌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은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불평등 논의와 깊이 연관된다.

##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 등장인물의 이해] (10점)

- 밑줄 친 지섭의 말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을 명시해야 함.

### [제시문 (나) 두 가지 입장에서 불평등의 원인 설명] (20점)

-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입장 혹은 설명이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뉘어 명시해야 함.
- 기능론에 따르면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 수행을 위해 투자하는 개인의 노력임을 명시해야 함.
- 갈등론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등 외부적 환경 요인과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한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함.

### [제시문 (다)의 두 입장과 제시문 (나)의 두 입장의 논리적 연계] (20점)

- 카피라이트는 기능론적 접근으로 그리고 카피레프트는 갈등론적 접근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함.
- 카피라이트는 기능론적 설명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함.
- 갈등론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직업과 무관하게 사람들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 제시되어야 함.

### [분량과 글쓰기]

-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글쓰기 수준이 낮은 경우 10점까지 감점.

### <유의 사항>

- (1) 글자 수 4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2)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 예시 답안

지섭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에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사회 기능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닌 능력의 사회적 중요성과 개인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쏟아 부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보상이 달라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어진 보상이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낳는다. 반면에 사회 갈등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등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제시문 (다)는 지적 재산권에 관련하여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카피라이트는 기능론적 설명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데,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은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반면에 갈등론은 카피레프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갈등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762자)

##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2] 제시문 (가)의 ㉠실용의 관점을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나)의 ㉡도구적 자연관의 문제점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한 다음, 제시문 (가)의 ㉢뽐내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허자가 말했다. “천지의 생물중에 오직 인간만이 귀합니다. 금수한테는 지혜가 없고 초목한테는 감각이 없으니깐요. 또한 이들에게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금수보다 귀한 존재이고, 초목은 금수보다 천한 존재이지요.”

㉠실용은 고개를 들어 꺾꺾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인간이로구나. 오륜(五倫)이 인간의 예이라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함께 먹이를 먹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균락을 지어 가지를 뽐는 건 초목의 예의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면 인간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물이 귀하고 인간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물은 균등하다. 무릇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으로는 ㉢뽐내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게 없다. 인간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물을 천하게 여김은 뽐내는 마음의 근본이다. 너는 왜 하늘의 입장에서 물을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물을 보느냐?”

(나)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인간 존재만을 가치있게 여기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이 아닌 존재는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동식물과 같은 존재는 인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우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본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간과하고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 입장은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자연을 인간 생활에 이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본다.

(다)

나는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타곤 한다. 말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을 몰아 말에게 부상을 입히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종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임금도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군주가 되고, 대부(大夫)도 신임을 못받는 신하가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

도가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장자에 따르면, 만물은 제각기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본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구만리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큰 새와 나무 사이를 겨우 날아다니는 매미는 타고난 본성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자유롭게 행복하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무리하게 개입해 자연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인위적으로 늘려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는 행위가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같이 도가는 무위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편, 불교에서는 만물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한다고 본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인간도 자연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인간이 다시 돌려받게 된다. 불교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

## ■ 출제 의도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와 자연 파괴 현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도덕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 ■ 문항 해설

- 본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가)의 실용의 자연관을 제시문 (나)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으로 해석하고, 제시문 (나)의 핵심적 특성인 도구적 자연관을 제시문 (다)의 이곡의 차마설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가)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 기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의 도가와 불교 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허자와 실용의 대화로 각각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며 자연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을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이곡의 차마설(借馬說)의 일부로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빌려 온 것이며 이를 자기 소유인 양 권력을 휘두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인간중심주의의 도구적 자연관에서 저지르기 쉬운 자연의 남용과 훼손의 폐해를 주의할 것을 지적하며 소유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라)는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덕적 관점으로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과 불교의 연기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사상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사용하여 제시문 (가)를 해석하는 능력,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도구적 자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 (라)의 논제에서 제시문 (가)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 채점 기준

\* 기본점수 50점,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100점.

①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실용의 자연관을 적절하게 비판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인간중심주의, 인간, 자연, 이분법적, 도구적

②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도구적 자연관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빌림, 말, 도구적, 소유, 함부로 사용

③ 제시문 (라)의 도가와 불교 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뽐내는 마음, 도가, 인간, 자연, 평등, 순응, 조화, 불교, 상호의존성

- ④ 글의 서론부에서 제시문 (가)의 자료를 적절하게 서술하고, 위의 ①, ②, ③ 항목의 논술 분량이 균등하고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실용, 인간, 자연, 물, 하늘, 평등, 천함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⑥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⑨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⑩ 글쓰기 수준이 낮은 경우 10점까지 감점.

##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 실용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귀하고 다른 생명이 천하지만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 는 도리어 인간이 천하다고 언급하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다른 생명은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만이 가치있는 존재이며, 다른 모든 대상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의 모든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자연은 도구로서 존재하며,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 저자는 인간이 소유한 것 중 빌리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며 남의 말을 빌려 함부로 다루는 예처럼 빌린 것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권력을 휘두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도구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데 제시문 (다)의 저자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의 남용과 훼손의 폐해를 주의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 인간만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천하게 여기는 뽐내는 마음의 한계점을 해결 하기 위해 제시문 (라)에서 도가는 자연의 가치와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인간과 모든 생물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도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상호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하고 있다. (789자)